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카를로 아쿠티스입니다. 저는 1991년 5월 3일, 부모님이 일하시던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곧 이탈리아로 돌아와 밀라노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늘 밝고 인생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학교생활도 즐겁게 했죠. 누군가는 저를 컴퓨터 천재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을 변화시킨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 작은 빵 조각 속에 숨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그 만남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체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시는 예수님은 제게 힘과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맺는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우정이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 제가 걱정했던 건,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재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독창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저 남을 따라 하며 살아가다, 결국 복사본처럼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저는 2006년 10월, 급성 백혈병으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재능을 키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복사본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어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복음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카를로